

아동기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

박원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Facilitative Relationship in the Relation between Father and Mother's Emotional Abuse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Won-Ju Park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인기 정서적 지지와 촉진적 관계가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적 학대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적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 336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정서조절곤란, 정서적 지지, 촉진적 관계척도를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적 학대, 정서적 지지, 이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정서조절곤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 및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했고,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경험은 성인기 정서적 지지나 촉진적 관계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경험을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영향력의 차이, 성인기 관계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의 임상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facilitative relationship in the relation of emotional abuse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rapeutic methods for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emotional abuse. Data about emotional abus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emotional support, and relationship inventory were collected by online survey from 336 adults in South Korea. To test modera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entering emotional abuse, emotional support(facilitative relationship) and their interaction terms were hierarchically conducted. Emotional abuse increase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facilitative relationship were found in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emotional abuse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But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facilitative relationship were not found i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emotional abuse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The different effects of father's emotional abuse and mother's, the effects of adult's positive relationship,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 Emotional Abus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Emotional Support, Facilitative Relationship, Moder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Won-Ju Park(Hanyang Cyber Univ.)

email: 1140002@hycu.ac.kr

Received April 23, 2019

Revised May 22,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조사'에 의하면 전국아동학대 사례 중 중복학대(45.6%)를 제외하면 정서적 학대(17.5%)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1].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학대 유형들 중 가장 만연되어 있으며 만성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2,3]. 특히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4,5],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장기적 영향과 이러한 과정에 매개하고 조절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서적 학대를 겪은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적응 향상을 돕고, 과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의 적응을 돕기 위한 치료적 개입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1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양육자인 성인이 아동의 가치감, 안정감에 대해 언어적 공격, 모욕, 굴욕감을 주는 것이며, 유기불안을 자극하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정서적 필요에 무관심하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6,7].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성격 형성 과정에 관여하면서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8]. 즉,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나는 쓸모없어', '사랑스럽지 않아' 등의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하여 이후의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9,10]. 또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안정적 애착 형성을 어렵게 하며, 대인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11], 장기적인 심리적 기능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12]. 특히 신체 학대나 방임에 비해 정서학대의 영향력이 가장 지속적이고 크다[13].

정서적 학대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불안, 우울,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13].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간 갈등상황에서 대화보다는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14], 자아존중감이 낮고, 위축되어 자기표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15]. 또한 정서적 학대는 또래관계 소외[16], 학교적응[17], 관계적 공격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18].

1.2 정서조절곤란

이러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과정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변인으로 정서조절이 주목받고 있다. 정서조절은 개인이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19,20], 이는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다[21]. 연구들에 의하면 정서조절은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22],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23].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경우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24], 아동기 학대 경험은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한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정서조절곤란 문제를 발생시킨다[25]. 즉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정서표현억제[26], 정서인식의 명료성[27], 정서 경험에 대한 수용[28], 그리고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9]. 그렇다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3 정서적 지지와 축진적 관계의 조절효과

한편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유아기와 아동기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를 받거나 여러 이유로 안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인기에 정서조절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사람들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즉, 어린 시절의 정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공감, 수용을 받을 경우 이들은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이미지와 타인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심리적 적응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30]. 이러한 관점은 상담자 뿐 아니라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아동기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영향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 변인으로 정서적 지지와 성인기 타인으로부터의 공감과 존중, 일치성 등 축진적 관계 경험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것이며[31], 안전하고 소속되어 있으며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한 주관적 지각[32]이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학대 경

험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33], 자기체계손상과 내면화된 수치심[34]을 매개로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학대와 부적인 관계에 있으며[35], 거부민감성을 감소시키고, 정서조절곤란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경계선적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친다[36]. 따라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경우 정서적 학대로 인한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자기개념이 완화되어 정서조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촉진적 관계는 상대방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관계로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일치성을 요소로 한다.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면서 반응하는 태도이다. 존중은 자기의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며, 일치성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나 기대 등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37,38].

이러한 촉진적 관계 경험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자기개념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공감하는 치료적 접근은 내담자의 어린 시절 불안정하고 거부적인 관계 경험으로 인한 상처와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수정할 수 있다[30]. 이러한 효과는 현실에 존재하는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공감, 존중, 일치성의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안전감, 신뢰를 경험하고 자기(self)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39]. 즉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정서적 학대로 인해 왜곡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진 경우, 성인기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존중, 일치성을 경험할 경우 긍정적 자기개념을 회복할 수 있고 이는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정서적 학대, 정서조절곤란, 정서적지지 및 촉진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며[24]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은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21,22,23].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상관계이론에서 치료적 방법으로 제시하는 공감과 지지, 수용의 효과[30]를 친밀한 관계 경험을 통해 확인할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공감, 수용, 일치성 등의 촉진적 관계 경험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는 조절효과는 보이는가?
2.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촉진적 관계는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심리학 관련 과목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 중 설문참여에 동의한 성인 336명을 대상으로 강의 시스템상의 설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만 20세에서 66세로, 평균 40.1세이며, 남성 62명(18.5%), 여성 274명(81.5%)이었다.

2.1.2 측정 도구

2.1.2.1 정서적 학대 척도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성혜[40]가 제작한 아동학대 척도로부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2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기와 관련된 학대 영역',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학대 영역', '행동차원의 학대 영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와 관련된 학대 영역에서는 부모가 잠정적으로 일관성 없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측정하며, "내가 특별히 잘못된 일도 없는데,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학대 영역에서는 아동이 받게 되는 마음에 상처에 따른 것으로, "내가 집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만하게 아버지(어머니)가 나에게 대한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행동 차원의 학대 영역은 자녀에게 모욕감과 불안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 문항과 언어적 학대 영역으로 "너를 괜히 낳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18세 혹은 그 이전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표시하도록 하며, 4점 리커트식 척도(1점 : 한 번도 없었다. 4점 : 자주 경험함)로 전체 점수 범위는 24~9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성혜(1992)가 보고한 정서적 학대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의 정서적 학대 .95, 모의 정서적 학대 .95이다.

2.1.2.2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LS: Korea-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정서조절 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 & Roemer가 정서조절에 관한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조용래[41]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36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지를 5점 리커트식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용래[41]의 문항 분석 및 요인 분석 연구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의 양상으로 나온 17번 문항을 제외하 총 3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35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조절곤란 척도는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위요인으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부족, 충동 통제곤란,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등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용래[41]의 한국판 DERS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76~.90 사이였고, 전체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5이다.

2.1.2.3 정서적 지지 척도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연수[42]가 수정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을 반영하는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이다.

2.1.2.4 관계 척도

(BLRI: Barre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수용 혹은 존중을 받는지, 또 정서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공감받고 또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rett-Lennard의 '관계 질문지'(Relationship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Barrett-Lennard가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존중과 공감,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967년에 만들었으며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왔다. 현재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등 모든 성장, 조력적인 관계를 측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박남숙[37]이 부부용으로 번역한 것을 배우자, 연인, 친한 친구용으로 수정한 것으로 존중, 공감, 일치성의 3요인으로 총 48문항이며, 리커트식 6점 척도이다. 박남숙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6, 하위영역별로 존중이 .93, 일치성이 .91, 공감이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8로 나타났다.

2.1.3 자료 분석

전체 설문 참여자 336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 분석을 했다. 먼저 정서적 학대, 정서조절곤란, 정서적지지, 촉진적 관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중심화 값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윈도우용 SPSS 23.0을 사용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분석

정서적 학대, 정서조절곤란, 정서적 지지, 촉진적 관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이들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 보았다(Table 1). 그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는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r=.40, p<.001$), 정서조절곤란($r=.27,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정서조절곤란($r=.37,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지지($r=-.13, p<.05$), 촉진적 관계($r=-.21,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적 지지($r=-.28, p<.001$), 촉진적 관계($r=-.38,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지지는 촉진적 관계($r=.83,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높을수록 성인기의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지

며, 정서조절곤란이 높을수록 가까운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지나 촉진적 관계 경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기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정서적 지지 및 촉진적 관계와 상관이 없으나, 아동기 어머니 정서적 학대의 경우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기 정서적 지지 및 촉진적 관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36)

	1	2	3	4	5
1.emotional abuse(father)	1				
2.emotional abuse(mother)	.40***	1			
3.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27***	.37***	1		
4.emotional support	-.01	-.13*	-.28***	1	
5. facilitative relationship	-.08	-.21***	-.38***	.83***	1
<i>M</i>	1.28	1.34	2.06	3.76	4.38
<i>(SD)</i>	.41	.44	.60	.89	.83

* $p < .05$, ** $p < .01$, *** $p < .001$

1. emotional abuse(father)
2. emotional abuse(mother)
3.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4. emotional support
5. facilitative relationship

2.2.2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지지를 독립변인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정서적 지지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각 변인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중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43].

분석결과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정서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지지는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의 정서적 학대: $\beta=.16, p<.01$;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beta=.27, p<.001$; 정서적 지지: $\beta=-.25, p<.001$).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아버지의 정서

적 학대와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beta=-.11, p<.05$). 마지막으로 3단계에 투입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7, p>.05$).(Table 2).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emotional abuse(father)(E. A. F), emotional abuse (mother)(E. A. M)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 (N=336)

D. V.	I.V.	β	R^2 (adj R^2)	ΔR^2	<i>F</i>
D. E. R.	E.A.(F)	.16**	.22 (.21)	.22	30.28***
	E.A.(M)	.27***			
	emotional support	-.25***			
D. E. R.	E.A.(F)	.19**	.23 (.22)	.01	5.33*
	E.A.(M)	.26***			
	emotional support	-.27***			
D. E. R.	E.A.(F) × emotional support	-.11*	.23 (.22)	0	1.36
	E.A.(M) × emotional support	-.07			
	emotional support	-.27***			

** $p < .01$, *** $p < .001$

적, 아동기에 경험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을 증가시키며, 성인기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지지는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는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43].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지지 각각의 상위 25%를 고집단으로 하위 25%를 저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 정서조절곤란의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Fig. 1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가 높아짐에 따라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지며, 정서적 지지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정서적 학대의 증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증가 경향이 더 완만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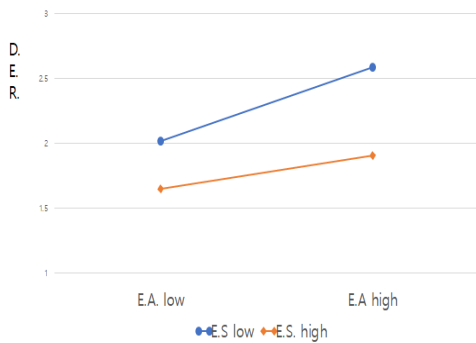


Fig. 1.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emotional abuse(father)(E. A.)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 (N=336)

2.2.3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를 독립변인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촉진적 관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각 변인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중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43].

분석결과를 보면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촉진적 관계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는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의 정서적 학대: $\beta=.16, p<.01$;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beta=.24, p<.001$; 촉진적 관계: $\beta=-.32, p<.001$).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beta=-.10, p<.05$). 마지막으로 3단계에 투입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8, p>.05$)(Table 3).

즉, 아동기에 경험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을 증가시키며, 성인기 촉진적 관계경험은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촉진적 관계경험은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

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facilitative relationship(F. R.)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emotional abuse(father)(E. A. F), emotional abuse(mother)(E. A. M)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 (N=336)

D. V.	I.V.	β	R^2 (adj R^2)	ΔR^2	F
step 1	E.A.(F)	.16**	.26 (.25)	.26	37.93***
	E.A.(M)	.24***			
	F. R.	-.32***			
step 2	E.A.(F)	.16**	.27 (.26)	.01	5.21*
	E.A.(M)	.24***			
	F. R.	-.33***			
D. E. R.	E.A.(F) × F. R.	-.10*			
	E.A.(F)	.16**	.27 (.26)	0	2.16
step 3	E.A.(M)	.25***			
	F. R.	-.33***			
D. E. R.	E.A.(F) × F. R.	-.12*			
	E.A.(M) × F. R.	-.08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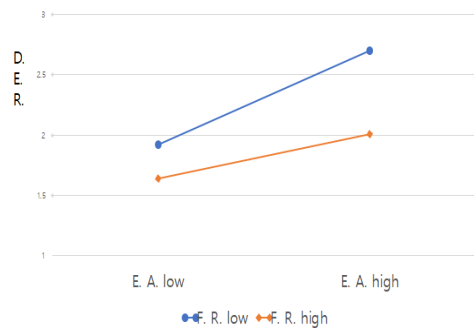


Fig. 2. The moderating effects of facilitative relationship(F. R.)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emotional abuse(father)(E. A.)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 (N=336)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에 대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43]. 정서적 학대와 촉진적 관계 각각의 상위 25%를 고집단으로 하위 25%를 저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 정서조절곤란의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Fig. 2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가 높아짐에 따라 정서조절곤란이 높아지며, 촉진적 관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정서적 학대의 증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증가 경향이 더 완만함을 알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 촉진적 관계가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 학대, 정서조절곤란, 정서적 지지, 촉진적 관계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는 정서조절곤란과 정적 상관, 정서적 지지, 촉진적 관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으며, 가까운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촉진적 관계는 적게 경험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 및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모두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인기에 정서조절에 있어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부모 모두의 경우에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자녀의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했으나,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자녀의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는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경험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정서적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의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학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역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자녀의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했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인

기의 가까운 관계에서 존중받고 공감받고 일치성이 높은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완화시킬 수 있으나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자녀를 대하고, 모욕감이나 유기불안을 촉발하는 언행을 할 경우,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정서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이 떨어지며 충동과 정서를 조절하면서 수행을 유지하는 능력, 즉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적 학대 경험과 부정적 자기개념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 경험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매개로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44]. 즉 정서적 학대 경험은 아동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조절하면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부민감성 역시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33]. 다시 말해서 아동기 정서학대경험은 자기개념과 거부민감성 등의 여러 변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인기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둘째,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나 촉진적 관계에서의 공감과 수용, 일치성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 관계 경험이 정서적 학대로 인한 부정적 자기개념과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거부민감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36], 촉진적 관계 경험 역시 자기개념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9]. 따라서 정서적 지지와 촉진적 관계 경험이 정서적 학대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하는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자기개념 감소 등을 통해 정서조절곤란의 문제가 완화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실제로 매력 없고 심지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이 정서적으로 따뜻한 지지를 받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

받고 수용받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감소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생활에서의 힘든 관계 경험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내적 완충지대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높아진 저항력은 이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정서적 지지와 촉진적 관계 경험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으나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완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애착 형성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아동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45]. 애착은 주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유아들에게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것을 감안할 때,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유아기 애착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아기 애착은 평생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므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의 영향력은 더 강력하고 지속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했던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없다는 것[35]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는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나 물질적 도움, 평가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지지가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정서적 학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어린 시절의 부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해 자기개념이 손상되고 거부민감성이 높아질 경우 이후 성장 과정이나 성인기의 긍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적 개입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유아기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지 못할 경우 자기

및 대인 표상에 손상을 입지만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공감과 수용, 지지를 경험할 경우 자기 및 대인 표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30].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제안을 지지해 주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의 경우 정서적 지지와 촉진적 관계의 조절 효과가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감, 존중, 일치성, 그리고 정서적 지지 외의 또 다른 대안적 상담 개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수용과 공감, 존중 등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해석과 통찰을 병행할 때 치료 효과가 상승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학대의 부정적 영향이 보다 깊고 만연되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 관계 경험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자각하며 사고와 감정반응을 수정해나가려는 보다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관련 변인들과 그들 간 경로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 및 조절하는 변인을 모색함으로써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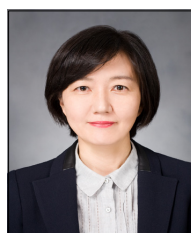
- [1] H. J. Kim, & H. Y. Shin,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s of Child Abuse in Busan", Busan Women's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2017.
- [2] S. A. Riggs, A. M. Cusimano, & K. M. Benso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ttachment processes in the dyadic adjustment of dating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8, No 1, pp.126-138,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1319>
- [3] A. Lowell, K. Renk, & A. H. Adgate,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later emotional and behavior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Vol 38, pp.1437-1449, 2014.
DOI: <http://dx.doi.org/10.1016/j.chiabu.2014.02.006>
- [4] J. Cassidy, & J. J. Mohr, "Unsolvable fear, trauma, and psychopat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considerations across the life spa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Vol 8, pp.275-298, 2001.

- DOI: <https://doi.org/10.1093/clipsy.8.3.275>
- [5] T. L. Messman-Moore, & A. A. Coates,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Vol 7, pp.75-92, 2007.
DOI: https://doi.org/10.1300/J135v07n02_05
- [6] M. R. Brassard, R. Germain, & S. N. Hart,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New York: Pergamon Press. 1987.
- [7] A. Shaffer, T. M. Yates, & B. R. Egeland, "The relation of emotional maltreatment to early adolescent competence: Developmental processes in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Vol 33, pp.36-44, 2009.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08.12.005>
- [8] S. L. Shearer, C. P. Peters, M. S. Quayman, & R. L. Orden, "Frequency and correlates of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histories in adult female borderline in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7, pp. 214-216, 1990.
DOI: <https://doi.org/10.1176/ajp.147.2.214>
- [9] E. E. Burns, J. L. Jacjson, & H. G. Hard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emotional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 19, pp. 801-819, 2010.
DOI: <http://dx.doi.org/10.1080/10926771.2010.522947>
- [10] P. Spinhoven, B. M. Elzinga, J. G., Hovens, K. Roelofs, F. G. Zitman, P. van Oppen, & B. W. Penninx, "The specificity of childhood adversities and negative life events across the life span to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26, pp. 103-112, 2010.
DOI: <https://doi.org/10.1016/j.jad.2010.02.132>
- [11] D. Cicchetti, S. L. Toth,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4, No 5, pp.541-565, 1995.
DOI: <https://doi.org/10.1097/00004583-199505000-00008>
- [12] B. Egeland,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Vol 33, No 1, pp.22-26, 2009.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08.12.004>
- [13] H. M. Yoon,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Abuse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8, No 1, pp. 173-206, 2017.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7.48.1.173>
- [14] R. S. Paul, & H. K. Kelly, "Bulling in school: An overview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schools*, Vol 27, No 2, pp.101-110, 2005.
DOI: <https://doi.org/10.1093/cs/27.2.101>
- [15] H. K. Jung, & S. J. Son, "Impact of self-esteem on perceived happiness among emotionally abused children: Does withdrawal matter?", *Journal of School Social Welfare*, Vol 41, pp.195-219, 2018.
DOI: <https://doi.org/10.20993/jssw.41.9>
- [16] Y. H. Oh,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impact of child-abuse to the delinquency and peer rejectio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12.
- [17] H. Y. Chang, *The Effects of A History of Being Abused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05.
- [18] R. Y. Bae, & J. Y. Choi, "The Effects of Emotional Abuse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 Mediating Effect of Friendship Problems,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Anger Rumin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Studies*, Vol 32, No 1, pp.29-52, 2018.
DOI: <https://doi.org/10.17286/kiiep.2018.32.1.02>
- [19] J. J. Gross, "Antecedent and response 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pp.224-237, 199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4.1.224>
- [20] J. J. Gross, & O. P. John,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No 2, pp.348-362,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5.2.348>
- [21] L. S. Greenberg,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DOI: <https://doi.org/10.1037/10447-000>
- [22] N. Garnefski, H. Koopman, V. Kraaij, & R. Cate, "Brief report: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dolescents with a chronic disease", *Journal of Adolescence*, Vol 32, pp.449-454, 2009.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8.01.003>
- [23] G. Kim, T. Walden, V. Harris, J. Karrass, & T. Catron, "Positive Emotion, and emotion Control in the Externalizing Problems of School-aged Childre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Vol 37, pp.221-239, 2007.
DOI: <https://doi.org/10.1007/s10578-006-0031-8>
- [24] J. Y. Choi & K. J. Oh, "The effects of cumulative childhood trauma on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sexually abus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4, No 1, pp.61-76, 2015.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5.34.1.004>
- [25] H. J. Lee, "Parent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Emotion Understanding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9, pp.457-483,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9.24.9.457>

- [26] H. I. Kim, M. S. Shin, & E.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Adulthoo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y on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al Inhibi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 Disorders*, Vol 28, No 4, pp. 353-380, 2012.
- [27] A. J. Jessar, J. L. Hamilton, M. Flynn, L. Y. Abramson, & L. B. Alloy, "Emotional clarity as a mechanism linking emotional neglec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37, pp.414-432, 2017.
DOI: <https://doi.org/10.1177/0272431615609157>
- [28] K. L. Gratz, M. A. Bornoalova, A. Delany-Brumsey, B. Nick, & C. W. Lejue, "A laboratory-based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experiential avoidance among inner-city substance users: The role of emotional nonacceptance", *Behavior Therapy*, Vol 38, pp.256-268, 2007.
DOI: <https://doi.org/10.1016/j.beth.2006.08.006>
- [29] B. Bradley, J. A. DeFife, C. Guarnaccia, J. Phofer, N. Fani, K. J. Ressler, & D. Westen, "Emotion dysregulation and negative affect: Association with psychiatric symptom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 72, pp.685-691, 2011.
DOI: <https://doi.org/10.4088/jcp.10m06409blu>
- [30] N. G. Hamilton,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Maryland: Jason Aronsen Inc. 1990.
- [31]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pp. 300-314, 1976.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32] C. Schaefer, J. C. Coyne, & R. S. Lazarus,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4, No 4, pp.381-406, 1981.
DOI: <https://doi.org/10.1007/bf008446149>
- [33] H. E. Kang & Y. A.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Emotional Regulation: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1, pp.618-62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618>
- [34] H. R. Kim & H. Y. Hong, "Th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Traumatized Self-System and Internalized Sham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6, pp.321-340, 2017.
- [35] S. H. Moon, & S. K. Suh,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otional Abuse and Aggres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6, pp.485-504, 2015.
- [36] S. H. Ha & M. S. Jang,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Vol 25, No 4, pp.833-852, 2013.
- [37] C. R. Rogers,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5, pp.2-10, 1975.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7500500202>
- [38] N. S. Park, *Developmen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Couple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 [39] E. S. Joo. & M. J. Park,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ors' Experiences in Person-Centered Group Counseling: Focusing on congruence,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empathic understanding", *Korea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 22, No 1, pp.47-68, 2016.
- [40] S. H. Goh, *Studies on defi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 [41] Y. R. Cho, "Assessing Emotion Dysregul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6, No 4, pp.1015-1038, 2007.
DOI: <https://doi.org/10.15842/kicp.2007.26.4.012>
- [42] Y. S. Kim,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1995.
- [43] L.S. Aiken, & S. G.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1991.
- [44] Y. H. Lee & H. A. Chang,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experienc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32, No 3, pp.241-255, 2018.
- [45] H. Kim & S. M.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Traumatic Experience and Empathy: Mediation Effect of Attach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6, pp.363-386, 2017.

박 원 주(Won-Ju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8월 : Georgi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2014년 3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상담심리학, 정신역동적 상담, 정서와 문화